

여수시, 지방정부 최초로 UN과 COP33 등 직접 협의 '주목'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COP33 유치 협력 방안 논의 섬박람회 스폰서십 등 협력...지속적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여수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UN기구와 COP33 등을 직접 논의, 그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 방문단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본에 위치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방문, 관계자들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UNFCCC 측은 COP33 개최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행사장 구성과 숙박시설, 대중교

통 인프라 등 필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특히, COP 민관 협력 강화를 담당하는 Global Climate Action(글로벌 기후 행동)팀은 "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또한, 5월 열리는 파나마 기후 주간과 6월 예정된 UNFCCC 중간 회의 등의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UNFCCC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스폰서십과 섬박람회 기간 중 UNFCCC 홍보관 설치, 기타 상호협력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UNFCCC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내부 검토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이번 UNFCCC와의 회의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및 COP33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노력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특히 세계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UN기구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여수시민들의 성원과 시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여수시는 지난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전라남도 유럽사무소(소장 김기철)와 이클레이 세계본부(사무총장 지노



반베긴)를 방문, 유럽 지역 국가는 물론 125개국 2,500여 개 지방정부에 대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과 더불어 COP33 유

치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순천시,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14명 수료...우수 여행상품 운영 예정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에코촌 생태관에서 '2025 순천시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양성 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관광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8일부터 25일까지 관광업 종사자 20명이 참여해 총 11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관광트렌드 분석 ▲국내외 사례 탐구 ▲관광상품 기획 및 발표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출석률 70% 이상과 기획 발표 참여 조건을 충족한 14명이 최종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10개 팀의 기획 발표 ▲수료증 수여 ▲교육 영상 상영 ▲수강생 소감 발표 ▲네트워킹 파티 등이 진행됐으며,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 우수 팀에게는 기획한 여행상품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수료를 넘어 참가자들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후속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기획상품 심사에 참여한 남해바래협동조합 김동일 이사장은 "참여자들의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상 깊었다"며, "주민이 직접 만드는 여행상품 기획을 지원하는 순천의 노력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4대 폭력 예방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 전개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 전반 폭력 근절 위한 공동 대응



광양시는 4월 29일 중마 23호 광장과 중촌 체육공원 일원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폭력 유형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4대 폭력 예

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양시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광양경찰서, 광양여성상담센터, 광양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했다. 이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리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캠페인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상담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박정금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며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폭력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보성군, 보성통합축제 맞이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 이벤트 실시

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5천 원 즉시 할인

보성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보성통합축제를 맞아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떡깨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하루 1회 한해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보성군의 상시 할인쿠폰(5천 원)과 전라남도의 배달비 지원 쿠폰(3천 원)을 중복 적

용 가능해, 소비자는 최대 1만 3천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떡깨비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타 배달 앱 대비 낮은 중계 수수료(1.5%)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또한 보성사랑상품권(모바일형) 결제 시 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

어, 착한 소비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과 관광객은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떡깨비'를 검색해 설치하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 행사는 보성군의 대표 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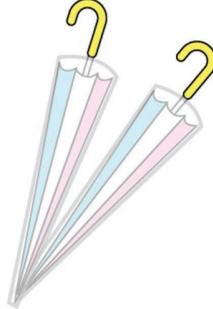
사용금지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